‘돈 먹는 하마’ 2순환도로 또 수백억 혈세 투입할판

광주지법, 아파트 소음피해소송 “市 책임있다” 판결

유사 소송 잇따를 전망 … 광주시 “부당” 항소

매년 운영비 등으로 200억원이 넘는 시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제2순환도로에 광주시가 또 다시 인근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소음 저감’을 위해 수 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제2순환도로 인근에 들어선 아파트 입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소음을 낮출 책임이 도로관리주체인 광주시에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판결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이용구)는 지난해 말 제2순환도로 인근에 위치한 남구 진월동 한 아파트 입주민 307명이 제기한 ‘소음유입유지’ 소송에서 주·야간 소음이 65dB 이하로 아파트에 유입되도록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이 아파트 내부에 주간 72dB, 야간 68dB의 소음이 전달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경우, 시는 최소 75억원을 들여 이 아파트를 지나는 제2순환도로 일부에 대해 터널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 5일 항소했다. 시 관계자는 “제2순환도로가 개설된 이후 아파트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자치구나 건설업체가 아닌 광주시에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도로 주변에 대한 모든 주거지에 대해 거액의 예산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에는 8m 높이의 방음벽이 있으나, 제2순환도로와 12~15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5층 이상은 효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2순환도로와 관련 이 외에도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입주민 439명이 제기한 소송도 진행중이며, 이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구 운림동, 광산구 신창동 등 아파트 3곳도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제2순환도로가 ‘소음’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지원~두암)과 3-1구간(효덕~풍암)의 투자자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 측과 관리운영권 회수를 둘러싼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 ‘소음’ 논란도 협상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2순환도로의 소유권은 시에 있으나, 관리운영권은 맥쿼리가 갖고 있어, 책임소재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시는 연간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맥쿼리에 재정보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축사 구제역 방제 11일 오전 광주시 북구 충효동의 한우 축사에서 북구청 직원들이 구제역 차단을 위한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경제난 속 외제차·대형차 급증

승용차 7대 중 1대 꼴 … 비율 해마다 크게 늘어

지난해 경제난 속에서도 광주지역에서 외제차와 2천500cc 이상 대형 승용차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추이에 따라 광주에서 운행되는 승용차 7대 중 1대가 대형 승용차로 그 비율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광주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49만4천460대였다. 이 가운데 대형 승용차는 5만3천446대, 외제차는 6천675대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말 자동차 등록대수 47만4천105대에 비해 2만355대(4.29%) 늘었으며, 늘어난 차 가운데 38.7%(7천882대)가 대형 승용차와 외제차였다. 대형 승용차는 5만5천446대, 외제차는 6천675대로, 지난 2008년보다 각각 13.8%, 26.1% 늘어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차량 등록 증가세는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정부가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시행한 노후 승용차 교체 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특소세 인하적용 등의 지원대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2만428대, 화물차 133대, 특수차 38대가 각각 늘었으며, 승합차는 244대 감소했다.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평균 0.94대(49만4천460대/52만4천093세대)였으며, 이 같은 차량 등록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광주시 자동차등록대수가 5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등록 통계를 통해 지역 내 소득양극화와 대형승용차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대형 승용차와 외제차 구입은 지난 2008년보다 더 늘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70대 노인 냉방서 동사

지난 10일 오전 10시5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 사는 안모(71)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 이모(57)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안씨가 전날 밤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안씨 부인의 연락을 받고 집에 가봤더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안씨가 “술을 자주 마셨다”는 지인의 말에 따라 만취해 냉방에서 자다가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5·18 묘지 화장실서 웬 새 사육?

관리소, 추위피해 꿩 등 8마리 키워

참배객들 “조류독감 옮을까 무서워”

국립 5·18 민주묘지관리소 화장실 안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새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묘지관리소 측이 10여 마리의 새를 혹한에 얼어 죽지 않도록 관리소 가까이에 있는 화장실에서 키우고 있는 것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묘지관리소 측은 지난해 2월부터 묘지 내 매화동산에 작은 동물원(부지 면적 18.92㎡)을 조성한 뒤 네 칸의 우리에 나눠 모란 앵무새·사랑 앵무새·염주 비둘기·공작 비둘기·꿩 등 12마리를 키워 왔다.

하지만, 지난 4일 날씨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작은 동물원에서 키우던 모란 앵무새 등 4마리가 부화에 실패하거나 얼어 죽자 묘지관리소는 비둘기·꿩 등 8마리를 4개의 새장에 나눠 가둔 뒤 묘지관리소 옆 화장실 안으로 옮겼다.〈사진〉

이를 본 참배객들은 “5·18 민주묘지 내 화장실에서 관상용 새를 키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 새들의 경우 사람에게 인수(사람과 조수)공통전염병인 조류 독감·조류결핵·앵무병 등을 옮길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우치동물원 관계자는 “낮기는 하지만, 질병 전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러 사람이 오가는 화장실에서 새를 키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묘지관리소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화장실에서 새를 키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새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이라면서 “전문가들이 전염병 감염 우려는 전혀 없다고 해 새들을 화장실로 잠시 옮겨 키우는 중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부부싸움 ‘칼부림’

40대 “귀가 늦다” 아내 흉기로 찔러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도 이제 옛말이 됐다.

아내와 갈등을 빚어오던 40대가 사소한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것이다.

1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K(44)씨는 지난달 26일 밤 10시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 안방에서 홀로 술을 마셨다. 귀가 시간이 늦어지자 미용실에서 일하던 아내 C(40)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C씨는 ‘바쁘다’면서 K씨의 전화를 받자마자 끊었다.

화가 난 K씨는 몇 시간 뒤 귀가한 C씨와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 전화를 끊은데다, 밤늦게 귀가한다는 게 그 이유였다. 결국 사소한 말다툼은 살인미수로까지 이어졌다. C씨는 흉기에 목을 찔렸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K씨는 경찰에서 “최근 귀가 문제로 아내와 말싸움을 자주 했는데 이날도 늦게 들어와 술김에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K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생활관 운영업체 상대

전남대, 고소·손배소

전남대가 최근 수익금 배분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던 대학생활관 운영업체인 U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남대는 지난 달 30일 광주지방법원에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과 함께 사기 및 업무상 배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회사 관계자를 형사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대 관계자는 “2008년 생활관 운영 이후 지금까지 식당 등 부속시설 임대차익이 20억원 발생했다”며 “업체측이 수차례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용감한 30대男 맨손 격투 강도 잡아

쌍나팔

○…한 30대 남성이 출소한 지 한 달도 안돼 또다시 범행에 나선 강도를 격투 끝에 붙잡아 화제.

○…11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소모(34)씨는 지난 7일 밤 9시께 자신이 사는 광주시 동구 한 건물에서 빨래를 말리던 중 여학생의 비명을 듣고 뛰쳐나가 강도를 붙잡았다는 것.

○…소씨는 일단 피해 여학생에게 범인의 인상착의를 전해듣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달아난 고모(36)씨를 50여m 뒤쫓아가 맨손 격투를 벌인 끝에 제압해 경찰에 인계.

○…동부경찰은 “각박한 세상에 위험을 무릅쓰고 어려운 일을 해줬다”며 소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